

198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 사회구조의 변동과 사회운동* - 칠레의 도시주민운동을 중심으로 -

이 남 석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하나로서 칠레의 도시주민운동을 구조변동의 상황 속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방향 아래 먼저 80년대 칠레자본주의의 변동과 비공식부문의 성격을 규명하려 시도하였고, 다음으로 칠레주민운동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이 운동의 구조적·정치적 성격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운동의 개념화와 이론화는 초보적 단계에 있으며 이 운동의 성격과 의미에 대한 논의는 아직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개념은 현재 불분명하고 너무나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둘째,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도시비공식부문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칠레의 주민운동과 같은 도시사회운동의 출현을 심화하는 구조적 요인이 된다.

셋째, 이 운동의 행동형태는 그들의 요구만큼이나 다양하다. 공공장소에서의 가두시위나 점유에서부터 단식농성, 소비자파업, 거리차단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

네째, 이 운동의 조직구조는 자율성을 지니고 있으며 중심적 행위자는 “계급”이 아닌 “대중”이다.

다섯째, 이 운동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하나로서 당파적 행위자가 독점하던 사회적 대표성을 어떤 형태로든지 파괴한다. 즉, 이 운동은 정치를 하는 전통적 방식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새로운 정치행동을 제시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I. 서 론

1-1. 연구의 목적과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현단계 라틴아메리카의 자본주의적 발전과정이 갖는 특징을 크게 “신자유주의적 재구조화”로 파악하고 그 구체적 표현인 산업재구조화와 탈산업화, 수출지향 공업화, 국가자본의 사유화 등의 현상이 사회행위자들, 특히 칠레의 도시비공식부문과 도시빈민운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 중 우리는 특별히 도시주민운동의 성격 및 도시비공식부문과의 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이 연구는 1980년대 이래 커다란 지각변동을 경험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대륙의 사회변동을 칠레의 경우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간의 근대화과 민주화가 획득한 성과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80년대 라틴아메리카대륙의

* 이 글은 교육부의 지역연구 지원사업에 따른 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된 것임.

사회구조변동에서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산업재구조화와 신기술의 도입이 전통적 산업 노동자운동에 미친 부정적 충격이다. 흔히 ‘탈산업화’, ‘노동의 분절화’, ‘비공식부문의 팽창’ 등으로 요약되는 이러한 현상은 사회행위자들의 집합행동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정치민주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크게 미친다. 최근에 보이는 중남미 민주화의 퇴행적 측면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 중요성을 가르키는 구체적인 예이다.¹

라틴아메리카대륙의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신보수주의적 근대화노선이 야기하는 정치사회적 위기는 미시분석의 예견을 크게 빗나가고 있다. 이들이 과소평가하였던 것은 민주화를 실현하는 데에서 구조적 조건이 갖는 규정력이라 할 수 있다. 즉 저성장, 탈산업화, 이에 따른 계급구조의 변화(산업노동자의 감소, 비공식부문의 팽창), 도시의 폭발과 도농간의 격차 심화, 정부의 통제력 상실(재정피폐, 공공재의 사유화) 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들은 이 대륙에서 정치의 문민화가 곧바로 “사회의 민주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다.²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지난 “잃어버린 10년(década perdida)” 이래 사회계급의 구조변동이 구체적으로 칠레사회 일반에 미친 충격을 면밀히 검토해 보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제2장에서는 칠레자본주의의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칠레 도시주민운동의 역사와 성격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칠레 도시주민운동의 문제와 한계를 간단히 제시하고자 한다.

1-2. 이론적 · 방법론적 입장

지난 70년대 라틴아메리카 사회과학계의 주요한 주제였던 소외계층(Marginalidad)에 대한 연구는 주로 근대화이론에 근거하여 진행되었다. 당시 주요한 논쟁점은 소외계층의 기능규명에 집중되어 있었다.³ 즉 이들의 사회적 성격이 근대에 대해 긍정적이나 또는 부정적이나에 분석의 초점이 있었다. 여기에는 이 계층이 왜 발생하게 되었느냐에 대한 구조적 분석이 결여되어 있었으며, 연구의 초점은 단지 현상적으로 이 계층의 기능을

1 최근 아이티(1990), 페루(1991), 과테말라(1992)에서 군부쿠테타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남미의 스위스라고 불리울 만큼 정치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던 베네수엘라(1991)에서도 쿠테타시도가 있었다. 이는 최근의 민주화가 아직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여기서 “사회의 민주화”라 함은 사회경제구조의 민주화를 의미하며 기본적으로 부의 공정한 분배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함축한다. 이 말은 맑스주의 경제학자 아구스틴 쿠에바(Agustín Cueva)가 최근의 남미 민주화가 갖는 경제적 한계를 비판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80년대 “남미의 민주화”가 주로 과거의 사회민주당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볼 때 사민당은 그 핵심인 경제적 사회성을 상실하고 정치적 민주화만 겨우 붙잡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Agustín Cueva, “Hacia Donde Va Nuestra Socialdemocracia?”, *Revista Estudios Latinoamericanos*, 1989, pp. 59-70.

3 근대화이론에 입각한 소외계층(sector marginal)연구는 70년대 종속학파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라틴아메리카 근대화이론의 대표자는 아르헨티나의 헤르마니이며, 이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Germani, *Sociología de la Modernización*, 1969.

설명하는 데 있었다. 80년대에 와서 라틴아메리카 사회과학계는 이 계층의 문제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뿌리를 지닌 것임을 인식하고 그 성격분석에 대한 연구를 전개하여 왔다. 그 중 가장 첨예한 대립을 가져온 입장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경제구조에서 비공식부문으로 분류되는 소외계층(sector marginal)은 사회변혁에서-혁명의-전위대적 역할을 하는가? 아니면 자본주의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완화시켜 자본주의의 위기를 몸으로 해소시키는 개혁의 기수인가? 이 논쟁은 상당한 이념적 대립의 성격을 지녔으며 70년대 군부독재기간에는 더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그러나 80년대 후반에 와서 전세계적으로 시장경제와 사유화정책이 확산되면서 논의는 새로운 차원에 진입하게 되었다. 오랫동안 수세적 또는 소극적 입장을 취해 왔던 기능주의 사회과학에서 비공식부문의 성격에 대한 적극적 평가가 시작되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이가 페루의 경제학자 에르난도 소토(Hernando Soto)이다. 그는 비공식부문이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를 구할 능력이 있는 계층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자본주의혁명의 전위대로서 비공식부문론”을 제시하였다.⁴ 그의 이러한 해석은 곧 세계은행(Banco Mundial)과 국제통화기금(Fondo Monetario Internacional)의 경제학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으며, 그의 저서에 대해 레이건(R. Reagan) 전 미국대통령이 제3세계 경제학자와 정치가가 꼭 읽어야 할 책이라고 극찬함으로써 소토의 이름은 더욱 널리 알려졌다. 이와 달리 사회주의 경제학자와 정치학자들은 이들을 혁명적 계급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애매한 계층으로 규정하였다. 어떤 의미에서 이들은 전통적인 계급적 관점에 서서 소외계층을 소극적으로 평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들은 “자본주의 사회변혁의 전위대는 노동자계급이다”라는 전제를 그대로 믿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여기에 오늘날 중남미 사회과학계에서 논쟁의 대상으로 부각된 “비공식부문은 자본주의혁명의 전위대인가 아니면 사회주의개혁의 기수인가”(Sector informal: vanguardia de la revolución capitalista o agente de la reforma socialista)의 논의배경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Pobladores)운동” 현상에 대한 개념정의와 연구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현재의 도시문제에 대한 자본주의적 재구성의 결과 중 하나가 소위 “비공식부문”의 팽창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비공식성”이란 용어는 분석적 범주로서는 거의 가치가 없으며 이데올로기적·정치적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쉽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라틴아메리카의 현 상황에서 “비공식부문” 또는 “비공식경제”에 대한 구름잡는 이야기는 좌익보다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지원하려는 우익에 의해 즐겨 사용되고 있다(Piscilla Connolly, 1990; Emilio Duhaw, 1991).

사실 80년대에는 비공식경제가 전례없이 절정을 누렸다는 느낌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실제로 절정에 있는 것은 비공식경제가 아니라 이러한 주제에 대한 연구이며, 이 절정

4 그의 대표적인 이론서로는 다음이 있다. Hernando Soto, *El Otro Sendero, Oveja Negra*, 1987. 그의 이론에 대한 비판으로는 아구스틴 쿠에바를 참고할 수 있다. Agustín Cueva, *Las Democracias Restringidas de América Latina: Elementos para una Reflexión Crítica*, 1988, pp. 117-147.

은 80년대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10년 전 이 용어를 만들어낸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의 비공식부문에 대한 주요이론가 가운데 한 사람인 빅토르 토크만(Victor Tokman, 1978)에 의하면, 이 용어는 1972년 아프리카 케냐에서 세계노동연맹기구(Organización Internacional del Trabajo, OIT)가 개최한 고용연구에 관한 학술대회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이후 비공식부문은 전세계의 5개 대륙에서 연구되었고 경제체제가 아주 다른 여러나라에서도 연구되었다.

라틴아메리카 도시사회학의 형성기원은 7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70년대 초에 이 영역을 지배했던 경향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라틴아메리카 사회과학협의회(Consejo Latinoamericano de Ciencias Sociales, CLACSO)의 노동운동연구집단이고, 다른 하나는 도시사회운동에 관한 마누엘 카스테스(Manuel Castells)의 연구집단이다.⁵ 이들은 새로운 사회적 행위자인 도시주민 또는 주변인을 인정하는 여러가지 연구를 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라틴아메리카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오랫동안 지배해온 시카고학파의 기능주의적 관점을 파괴하였다.

첫째, 카스테스는 도시체계에 대한 이론적 연구에 뛰어난 기여를 하였다. 그는 시카고학파 도시사회학의 기능주의적 관점을 구조주의적 맑스주의의 전장에서 비판하였다. 카스테스의 연구집단은 구조와 도시내 사회적 실천 사이의 통합적 전망을 실현하려 하였다. 노동력 재생산의 개념은 이러한 관점에서 통합적 역할을 수행하였다.⁶

둘째, 종속적 도시화에 대한 연구는 국가와 사회간의 갈등에 대한 라틴아메리카의 특수성을 투명화하는 새로운 형태를 제시하였다. 도시운동에 대한 여러 경험적 연구, 특히 칠레주민에 대한 경험적 조사에 의해 도시운동은 도시사회공간의 질서를 회복하는 새로운 사회적 행위자로 부각되었다. 비록 지금은 “도시사회학의 프랑스학파”로 알려진 마누엘 카스테스의 이론적 입장이 쇠퇴하고 있으나, 그의 관점은 “자본주의적 도시화”라는 총체적 개념을 이론적 전망으로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련의 분석적 개념도 제시하였다.

그는 칠레의 주민운동을 “노동력의 자본주의적 재생산의 부족”을 유발하는 자본주의의 고유한 조건에서 비롯한 것으로 분석하고 특히 주민운동의 “프롤레타리아적” 성격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이리하여 이 문제는 2차적 모순이 아니라 본질적 모순으로 제기되었으며 자본과 노동간의 관계에서 인식되었다.⁷

5 칠레의 주민운동에 대한 마누엘 카스테스(Manuel Castells)의 대표적 연구서는 다음과 같다. Manuel Castells, *La Lucha de Clases en Chile*, 1971; *Imperialismo y Urbanización en América Latina*, 1973; *Movimientos Sociales Urbanos*, 1980; *La Cuestión Urbana*, 1991.

6 도시사회학에 관한 마누엘 카스테스의 초기 이론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할 수 있다. Manuel Castells, *Problemas de Investigación en Sociología Urbana*, 1971.

7 최근에 와서 그는 이전의 계급적 입장을 수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칠레의 주민운동에 대한 전통적 맑스주의분석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새로운 사회운동의 하나로 보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La Cuestión Urbana*, 1991, pp. 413-469. 이 경험에 근거하여 그는 스페인의 시민운동을 새로운 사회운동의 전장에서 분석하였다. *Ciudad, Democracia y Socialismo*, 1977.

물론 모든 라틴아메리카 도시사회학이 이 관점을 채택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으로는 라틴아메리카 맑스주의의 고유한 전통에 입각한 학자들이 종속이론의 도움을 받아 종속도시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일부 맑스주의학자들은 프랑크학파의 테제를 결정적으로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인류학의 관점에서 공동체를 연구하는 입장이 대두하였으며, 빈곤의 문화라는 관점에서 몇몇 중요한 업적이 생산되었다. 또 생태-인구학적 관점에서 도시화과정을 연구·조사하는 도시생태학도 발전하고 있다. 즉 현재 라틴아메리카 도시사회학은 “자본주의적 도시화” 또는 “도시화의 정치경제학”이라고 볼리우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매우 다양한 연구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의심의 여지없이 지난 80년대 칠레 도시사회학의 연구는 고무적인 결과를 창출했다. 80년대에 생산된 연구업적의 양이 많을 뿐만 아니라 70년대와는 정반대로 도시연구의 조사와 분석의 주제, 단계, 관점에서 놀라운 다양성이 나타났다. 70년대의 칠레 도시문제에 대한 대표적 연구는 마누엘 카스테스토 대표되는 정치경제학파와 기능주의적 분석의 입장을 취하는 시카고학파로 나누어졌다. 이 영역의 연구는 80년대에 이 지역의 노동운동과 관련하여 두 가지 중요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하나는 경제적 위기와 민주주의를 향한 변혁이라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갈등적인 노동조합주의와의 긴장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노동운동과 도시운동에 대한 연구는 80년대 후반에 와서 더욱 풍부해졌다. 이들 연구에는 새로운 집합적 행위자의 영역이 첨가되었다. 여성, 청년, 인권, 교회, 지역운동 등이 덧붙여졌다. 분석의 방법에서도 이들 연구는 정치적 내지 경제적 차원에 집중하던 과거의 연구와 달리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을 포괄하고 있다. 칠레 도시주민운동에 대한 우리의 방법론적 입장도 바로 이러한 최근의 연구경향을 수용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II. 80년대 칠레자본주의의 변동과 사회구조의 성격

2-1. 80년대 칠레자본주의의 변동

지난 30년간의 군부지배하에 칠레경제는 엄청난 변화를 거쳤다. 피노철프(Pinochet)정부의 집권기간에 행해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수출주도와 사유화에 기반을 둔 경제구조를 형성하는 데 집중하였다.⁸ 사실 최근 17년간의 군사독재기간은 신자유주의 모델의 절정과 심화 그리고 위기를 경험한 시기였다(Pilar Vergara, 1985). 이 정책은 미국에서

8 군사정부하에서 시행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Sergio Bitar, *Chile: Liberalismo Económico y Dictadura Política*, 1981; Alexis Guardia, “Chile: Del Fracaso Neoliberal a los Desafíos de la Economía Mixta”, *Opciones*, 1985, pp. 58-83; Jose Pablo Arellano y otros, *Modelo Económico Chileno: Trayectoria de una Crítica*, 1982.

학위를 받고 돌아온 소장학자들에 의해 추진되었다. “칠레의 시카고보이(Chicago Boys)”라고 불리는 이들은 1973년 9월 이후 칠레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화의 주축이 되었다(Patricio Silva, 1991). 이들이 주도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경제의 사유화와 탈산업화 그리고 탈봉급생활화 과정을 유도하였다.

신자유주의 경제모델의 근본사상 가운데 하나는 공공부문(sector público)이 경제영역에서 2차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1973년부터 국가경제의 사유화가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었다. 쿠데타 이전 국가가 관리하던 기업은 산업, 광산, 은행, 보험회사 등 약 500개였으나 1980년에는 약 475개의 공공기업이 민간부문에 매각되었다. 이것은 이 기업들이 몇몇 소수 기업의 손에 넘겨졌음을 의미한다. 칠레의 대표적 우익 일간지인 *El Mercurio*는 이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정치가들이 경제에서 손을 떼도록 하는 것. 그것은 군사정부의 당면과제이며, 지속되고 완결되어 심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하여 자유사회의 진정한 기초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⁹

80년대 후반에 이르러 70년대의 수출주도형 경제에는 약간의 변화가 발생했다. 이것은 1차산업 위주의 수출구조에서 1차산업과 2차산업이 병행하는 수출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자동적으로 산업구조와 고용구조에 변화를 가져왔다(Alejandro Foxley, 1985: 55-86). 군사정부가 실시한 경제모델은 “신자유주의” 또는 “시장의 사회경제”라고 불린다. 이러한 형태의 경제 안에서 국가는 “보조(Subsidiariedad)”의 원칙 아래 행동한다. 정권의 한 이데올로그는 “국가는 일시적이고 역사적이다”라고 표현하였다. 이 원칙이 경제영역에 적용되면서 국가의 역할은 시장경제의 기구적·기술적 차원을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경제활동의 본질적 측면은 사기업의 손에 있다. 경제를 일으키는 힘은 수요와 공급이 “자유로운 규칙”을 통해 결정되는 시장에 있다. 다시 말해 어떻게, 얼마나, 어디서, 언제 무엇을 생산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시장이다. 이론적으로 분류하면 생산수단의 소유는 사적, 집합적, 협동적이 될 수 있다. 칠레의 경우, 이 문제는 무제한의 사유재산을 선택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신자유주의 경제모델의 단기적·장기적 목표는 30년대 이후 진행되어온 국가개입의 형태들을 폐지하는 데 있었다. 시장의 정상화란 이름으로, 또는 경제적 효율성의 추구하고 개인적 자유의 회복이라는 명분으로 국가의 간섭은 제한되었다. 경제영역에서 국가개입이 제한된 직접적 결과는 “경제집단”이라 불리는 소수의 손에 생산자본과 금융자본이 대규모로 집중된 것이었다. 이 집단은 다양한 형태로 수많은 기업의 경제활동을 통제한다. 그들은 위험을 줄이고 최대의 이윤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의 다양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국가에 대한 직접적 행동을 시도하고 산업재벌의 유지에 유리한 영향을 주기 위하여 그들의 사회적·정치적·경제적 기준과 일치하는 활동의 보장을 요구하였다.

9 *El Mercurio*, 1980, p. 9.

2-2. 사회구조의 성격

1940년 이후 칠레경제는 수입대체산업화 경제발전모델을 채택하였다. 산업화는 이미 노동력이 집중되어 있던 수도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1940-60년간 산업고용인구는 끊임없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1973년 시장경제모델의 적용과 함께 산업고용인구는 엄청나게 감소하였다. 군사정부에 의해 새로이 채택된 경제발전모델은 이전의 “안으로의 발전전략”을 180도 수정하는 것이었다. 경제는 “외부로의 수출전략”을 지향하였으며 비교경쟁의 우위가 있는 상품의 생산에 주력하였다. 시장이 모든 생산의 기준이 되었으며 국가는 발전의 추진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노동계급이 양적으로 감소하여 노동계급의 사회적 영향력이 축소되었다(Martinez y Tironi, 1985).

한편 탈산업화는 노동자의 감소를 초래하는 동시에 이들을 더욱 빈곤하게 하였다. 노동자는 1960년에 전체 노동인구의 40.7%를 차지하였으나 1970년에는 32.5%, 1979년에는 24.8%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의 원인은 1973년 이후 생산부문의 동력이 노동력이 적게 소비되는 생산체제로 전환한 때문이라고 지적되었다. 또다른 연구는 노동자의 비율이 1971년의 22.3%에서 1984년의 7.5%로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리하여 사회적 집단행동과 사회구조의 탈노동자화가 진행되었다. 이것은 노동력의 기술적 구성에 근본적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탈산업화과정에서 제조업과 건설부문에서 노동력이 배제된 결과, 노출실업의 비율은 놀라울 정도로 증가하였다. 경제활동인구(PEA)를 기준으로 하여 실업률은 평균 6-17%의 증가율을 보였다.¹⁰ 결과적으로 산업노동자계급 및 기타부류는 빈곤해졌다. 그러나 이들이 자본주의발전의 새로운 상태의 반영으로서 새로운 노동계급을 형성하지는 않았다.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실업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도시의 주변층과 비공식부문이 형성되었다. 또한 전체생산에 대한 산업생산부문의 참여는 1970-71년의 25%에서 1982년의 22.2%로 감소하였다. 다시 말해 산업의 해체와 그로 인한 노동계급구조의 변화는 산업노동력의 감소와 실업률의 증가로 귀결되었다. 1982-83년간의 실업률은 거의 30%에 가까웠다. 그리고 실업은 보다 가난한 계층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다(Dagmar Raczynski, 1978).

사회구조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고용구조에의 진입가능성이 오랫동안 배제되었던 주변대중의 성장과 도시의 팽창일 것이다. 이처럼 배제되고 더욱 빈곤해진 대중은 도시세계에서 지배적인 존재가 되었다. 농지개혁으로 땅을 빼앗긴 농민들은 생존을 위해 노동력을 팔아야만 했다. 이 가운데 젊은 노동력은 근대세계에 쉽게 흡수될 수 없었으며 농촌지역의 “판자촌”주민을 형성하는 기원이 되었다. 이렇게 하여 농촌의 사회구조에서도 가난한 주변대중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¹¹ 도시화과정의 가장 즉각적이고 가

10 Alejandro Foxley, *Para una Democracia Estable, Economía y Política*, 1985, p. 158.

11 Guillermo Campero, “Luchas y Movilizaciones Sociales en la Crisis: Se Constituyen Movimientos Sociales en Chile?”, *Los Movimientos Sociales ante la Crisis*, 1986, pp. 289-307.

시적인 현상은 주택의 부족이다. 1960-73년간 정부는 비록 만족스러운 해결은 이루지 못했지만 상당한 수의 대중주택건설을 추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3년 공식적인 주택부족수는 744,113가구였다(표1 참고).

〈표 1〉 칠레의 주택부족량

해	추정되는 부족량
1953	156,205
1959	454,000
1965	420,000
1971	529,324
1983	744,113

출처: *Heramoto*, 1983: Jorge Chateau y Hernan Pozo, *Ibid.*, p. 47.

요약하면 1973년 이후 칠레에서는 비조직적인 사회-고용범주 또는 비공식고용부문이 광범위하게 성장하였으며 형식적이고 안정된 고용구조는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비조직화의 과정과 함께 사회-고용구조의 새로운 행동주체 흡입, 특히 청년과 여성의 증가현상이 일어났다. 결과적으로 사회고용구조의 내용은 공식부문의 지속적인 해체로 정의될 수 있으며, 새로운 부문의 수용에 대한 경직성으로 인해 보다 비조직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2-3. 비공식부문의 위치

오랫동안의 논의를 통해서도 아직 분명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바로 “비공식부문”에 대한 개념정의이다(Ramirez Apolonia, 1983). 이는 비공식부문의 계급적 성격이 분명하지 않은 데에서 비롯한다.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알랭 뚜렌은 라틴아메리카의 도시비공식부문을 전통적인 계급범주로 이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Alain Touraine, 1989: 63-70). 현 민간정부의 재무장관인 알레한드로 폭슬리(Alejandro Foxley)는 계급구조 내에서 비공식부문을 프롤레타리아계층의 주변계층으로 분류하였다.¹² 동일한 개념을 사용하면서 라치스키(Racznski, 1978)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한다. 그의 분석은 그 범위가 70년대 초까지의 시기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으나 매우 유용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전반적 차원에서 비공식고용은 60년대에 노동력의 19%였던 데 비해 70년대에는 PEA의 18%이다. 다시 말해 10년 동안 비공식고용은 단지 연평균 0.4%밖에 증가하지 못했다(표2와 3을 참고). 그러나 1970-80년간의 통계는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한다.

¹² Alejandro Foxley, *Ibid.*, pp. 158-160.

이 기간의 비공식부문은 놀라운 정도로 팽창하여 1970년의 18%에서 1980년의 26.5%로 증가했으며 연평균 6%의 성장율을 보여 주었다. 지난 해 (CIEPLAN이 지도하는) CASEN의 조사에 의하면 도시비공식부문은 전체 고용인구의 19.7%를 차지하였다.¹³

다른 나라에 비해 칠레의 비공식부문은 비율이 낮다. PREALC의 통계조사에 따르면, 1950년과 1980년 사이 칠레의 비공식부문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유일하게 감소추세에 있었다.¹⁴ 반면 페루와 멕시코의 비공식부문 비율은 상당히 높으며 이러한 경향은 계속될 전망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비공식부문의 증가가 정치권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점이다. 공식부문 노동계급의 비율이 낮아지면 비공식부문의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영향이 어떠한 성격으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표 2〉 칠레 도시비공식고용의 증가와 추정규모

	1952		1960		1970
비공식고용					
1. 직업구분					
- 노동자(1000)			464		484
- 전체 PEA%	a		19%		18%
- 도시 PEA%			28%		24%
- 연평균 성장율				0.4	
2. 활동영역별 구분					
- 노동자(1000)	491		496		506
- 전체 PEA%	23%		21%		19%
- 도시 PEA%	36%		30%		25%
- 연평균 성장율		0.1		0.2	
경제활동인구(PEA)					
1. 전체					
- 노동자(1000)	2,155		2,389		2,696
- 연평균 성장율		1.3		1.2	
2. 도시					
- 노동자(1000)	1,364		1,646		2,036
- 연평균 성장율		2.4		2.2	
3. 농촌					
- 노동자(1000)	791		743		660
- 연평균 성장율		-0.8		-1.2	

출처: Dagmar Raczynski, *Características del Empleo Informal Urbano en Chile*, 1978, p. 11에서 재인용.

¹³ Jaime Ruiz Tagle, "Desafíos del Sindicalismo Chileno Frente a la Flexibilización del Mercado del Trabajo", *Ponencia Presentada para el XVII Congreso Internacional de la LASA*, p. 6.

¹⁴ Alain Touraine, *Ibid.*, pp. 68-69.

〈표 3〉 1960-70년간 대 산티아고(Gran Santiago) 지역내 도시경제활동인구(PEA)와 비공식고용의 비율

	1960	1970
비공식고용		
- 가내	47%	48%
- 자용적	37%	44%
- 양자	41%	45%
도시 PEA	41	44

출처: Banco de Datos de CELADE, Tabulación, OMUECE par Lile.

Ⅲ. 칠레 도시주민운동의 역사와 성격

3-1. 칠레 도시주민운동의 역사

칠레 도시주민운동의 역사는 일반적으로 다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1) 운동의 기원과 기민당정부시기(1940-70); 2) 인민연합정부시기(1970-73); 3) 군사정권시기(1973-89).¹⁵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기구분은 군사정권의 수립(1973) 이전과 이후가 될 것이다.

3-1-1. 운동의 기원과 기민당정부시기(1940-70)

“주민운동”의 역사는 “움막주민(Callampas)”과 “판자촌”빈민의 발전과정에 대한 분석으로 요약된다. “움막”의 출현은 농촌이 도시에 대규모 유입된 결과이자 수입대체산업기간에 발생한 대중계층의 대대적 이탈의 결과이며, 그 기원은 40년대 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칠레의 산업화과정은 40년대부터 심화되었다. 이것은 도시를 중심으로 한 주민집중의 증가를 유발한 동시에 광산과 지방수공업의 위기를 초래하였으며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이동을 강요하였다. 이것은 도시를 급격히 포화상태로 만들었다. 이러한 내부이민의 대대적 유입과 도시 변두리에 이미 정착한 빈민들의 도시밖으로의 추방은 집없는 이들에 의한 토지의 무단점유와 판자촌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되었다(CMP, 1986: 35-47).

일반적으로 1946년은 라 레구아(La Legua), 산 미겔(San Miguel), 로스 노갈레스(Los

¹⁵ 보다 자세한 역사적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Coordinador Metropolitana Pobladores, “El Movimiento Poblacional: Apuntes para una Historia”, *Araucaria de Chile*, 1986, pp. 35-47; Alfredo Rodríguez, “Veinte Años de las Pobladores de Santiago(1968-1985)”, *Proposiciones* 1987, pp. 24-43.

Nogales), 아구아다 데 산혼(Aguada de Zañon), 로 바예도르(Lo Valledor) 그리고 레카바렌(Recabarren) 등의 지역에서 “토지”의 “점유”사건이 시작된 해로 지적된다. 1957년 약 3,240가구(15,000명 정도)가 라 페리아(La Feria)의 땅을 점유한 것은 최대의 토지점유사건 가운데 하나로 기록된다. 인민전선(Frente Popular)기간 동안 공산당이 시행한 대중조직을 통한 동원과 압력의 정치는 1952-59년간 발생한 “판자촌”의 팽창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53년 “주택공사(la Corporación de la Vivienda, CORVI)”가 창설되고 1954년 이후 국가가 “판자촌”을 제거하기 위해 주택건설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5년에 걸쳐 이러한 종류의 주거지는 현저하게 증가했다. 도시판자촌의 주거자수는 1952년에 전국적으로 34,533가구에 달했고 60년대에는 3배인 99,723가구로 늘어났다. 일반적으로 1973년 이전의 주택정책은 주택문제에 대한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알렉산드리(J. Alessandri)의 보수주의 정부는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개인적·경제적 능력에 특권을 주면서 “소유자가 되는 것”과 사적 건축활동의 증진을 주택정책의 최종목표로 삼았다. 또 에두아르도 프레이(Eduardo Frei)의 개혁주의 정부도 국가에 의해 재정이 보조되는 대중주택의 건축정책을 실천하면서도 건축의 최종책임은 사기업에 주었다. 국가는 대중계층의 요구와 기업계층의 요구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쳤다. 그 결과, 대중주택건축의 낮은 수익성으로 인하여 중산계층을 위한 주택의 초과생산과 대중계층을 위한 주택의 부족현상이 일어났다.

기민당은 “민중을 조직하려는” 개혁정치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그리고 “대중진흥”의 전략 속에서 실시된 구조주의적(asistencialista) 사회정치 일부로서 “긴급작전(Operación Sitio)”이라는 사회적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이 정책에 의해 1965-70년간에 산티아고의 전시민 가운데 거의 20%가 주택의 자율적 건축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3-1-2. 인민연합정부시기(1970-73)

1970년 대통령선거 이후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절정에 이르러 주민운동의 일대 부활현상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조직들이 나타났으며, 점유된 토지 내부에는 “판자촌”이 세워지고 이곳의 주민들은 도시권리의 회복문제를 정치투쟁과 결부시켜 제기하였다. 많은 경우에 이들은 토지의 점유를 통해 주거지의 안정을 확보하였다. 1970년 4월에 개최된 제1차 “집없는 이들”의 전국총회는 운동조직의 질적인 도약을 반영하였다. 점유과정은 가열되었고 점유자들은 조직의 새로운 형태를 발전시켰다. 최대의 조직을 확보한 이 시기의 주민운동은 강력한 권리회복활동의 방편으로 기존법을 무시하였다. 주민운동의 역사적 단계는 인민연합정부의 발전단계와 일치한다. 이 기간에 주민운동은 역사에 전례없는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운동은 전국적 차원의 조직을 구성하는 데 성공하였다(Alfredo Rodriguez, 1987).

살바도르 아옌데(Salvador Allende)가 승리한 선거의 해인 1970년의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20회의 토지점유사건이 발생하였다. 모든 시민의 “권리로서 주택”의

원칙에 따라 인민연합정부는 1970-71년간 “긴급한 주택정책 프로그램”을 수립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대중주택의 건설과 아울러 판자촌에 존재하는 휴직자(Cesanta)의 비율 감소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국가가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행동이 지나치게 빈약하였으므로 “점유”는 계속 진행되었다.

3-1-3. 군사독재시기(1973-89)

1973년 이후 칠레는 자본주의를 모든 영역에서 보편화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모델을 채택했으며, 이에 따라 세계자본주의의 이익을 위한 칠레경제의 종속이 심화되었고 자본의 독점이 강화되었다.

정부는 국내에서 사회경제적 활동의 사유화를 장려하였다. 모든 영역에서 국가가 관리하던 기업이 사유화된 결과, 칠레역사상 가장 많은 실업자군이 형성되었다. 군사정권 하에서 실업자의 증가는 계속 높아졌다. 이러한 경제적 변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정치적으로 모든 영역이 탄압되었으며, 이것은 민중운동에 대한 강력한 박해로 나타났다. 탄압과 협박은 모든 형태의 참여에 대하여 가해졌다. 이것은 주민운동에도 악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이 탄압은 빈민과 판자촌의 투쟁과 정치적 참여를 오히려 강화시켰다. 1973-77년간 “이웃주민위원회”는 빈민이 자신의 문제와 요구를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조직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어떠한 요구도 실현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시청에서 임명한 이 위원회의 상임위원들은 주민의 문제를 알지 못했으며 많은 경우에 “기존질서”를 반대하는 세력을 차단하고 대중저항을 약화시키는 임무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초의 독립조직은 카톨릭교회의 보호 아래 연대의 기능을 지닌 미비한 형태로 시작되었다. 가령 공동식당, 실직자기금, 공동취사 등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Manuel Garretton, 1990).

1974년 국가참여의 영역에서 대중계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정부는 자유시장철학에 영향을 받아, 주택은 이제 하나의 권리가 아니라 노력과 저축을 통해 시장에서 소유되고 이전될 수 있는 재산이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국가의 역할은 주민들에게 -하부구조의 신설과 기본시설(공공)의 건축을 통해, 또 판자촌의 “철거”와 “주택기금”의 대부분을 통해- 주택구입을 원할하게 만드는 데 있다고 정의되었다. 이 정책은 1981년에 소멸된 “칠레주민총회”에서 “무용지물이고 허구적인 것”으로 주민들에 의해 거부되었다(Vanderschuren Franz, 1971).

1978년 정부의 억압적 행동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형태의 권리회복운동조직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전망에 부응하여 1978년 전국노동조합위원회 산하에 주택위원회가 조직되었다. 1979년 3월에는 “수도권지역 주민협의회”가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의 최초 행동은 몰탱크 점유사건이었다(Vincente Espinoza, 1988).

1982년 10월 라 빅토리아(La Victoria)지역에서 주민에 의한 점유사건이 일어났다. 이것은 빈민의 대규모 참여가 일어난 최초의 점유였다(표4 참고). 이 모든 것은 1983년의 전국적 저항운동을 위한 주민들의 값진 경험이 되었다. 푸타우엘공항 근처에 있는 한

지역은 남자주민의 70%가 휴직상태(Cesantes)에 있었다. 이들 휴직원의 비참한 상황은 다음과 같은 증언에서 이해될 수 있다.

“주민보조를 받기위해 나는 20만 페소 이상을 모아야 한다. 그 때 나는 2천 페소를 보증금으로 가져갔으며 정부책임자는 부족하다고 그것을 받지 않았다. 나는 통장에 300페소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이상도 이하도 없었다. 내가 버는 모든 것은 우리애들을 겨우 굶기지 않는 데 소비한다”(Guillermo Campero, 1987).

한편 군사정부는 “위생건물(Casetas)”이라고 부르는 건설사업을 추진하여 변소와 (수돗물, 전기가 포함된) 식당을 단계별로 건축하였다. 그리고 산티아고의 남쪽 주변지역에 흩어져 있는 주민들에게 대여하는 다세대 “기능주택”의 건축을 추진하였다. 이 다세대주택들은 18~36미터 넓이의 건축물로서 개인소유로 넘겨졌다(Pozo H. Chateau, 1985).

도시의 “가난한 주변지역을 없애기 위해” 군사정부가 추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주변층은 끊임없이 나타났다. 이렇게 하여 1982년 수도권지역의 판자촌에서 쫓겨난 가족의 수는 5,775가구에 달한다. 이 해에 “판자촌”에 사는 가족의 전체수는 대산티아고(Gran Santiago)에만 51,924가구였다.

경제적 상황의 어려움과 많은 주민들의 생활조건의 비참함은 1980-85년간 13개의 공동체에서 19번의 “점유”를 일으키는 동기가 되었다. 이 “점유”사건에는 약 9,797가구(약 5만명 이상)가 참여하였으나 단지 세 지역에서만 성공하였다. 후안 프란시스코 프렌소, 라울 실바 엔리케소, 8월 23일 판자촌이 그곳이다. 그 외의 대부분은 구속자, 부상자, 사망자를 내면서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철거되었다.

땅의 “점유”는 역사적으로 자신의 집을 획득하기 위해 대중계층이 국가에 대해 사용하는 압력의 한 수단이다. 70년대 동안 좌파정당, 기독교민주당 그리고 교회는 “점유된” 물리적 공간의 소유권을 주민들에게 허락하도록 국가와 지속적으로 협상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 “점유”가 사유재산에 대한 받아들일 수 없는 불법행위라고 선언된 이후 이 가능성은 더욱 제한되었다.

3-2. 칠레 도시주민운동의 성격

조직적 참여가 허약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소외된 집단들은 라틴아메리카 민중운동의 최선두에 있었다. 80년대의 민주적 변혁과 민주주의 회복과정에서 이들의 출현은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사실상 브라질을 제외하면 임금노동자의 감소와 다양화 경향은 남미 전역에 걸쳐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 때문에 노동운동과 노동자의 상상력은 어느 정도 그 중심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주체와 사회적 갈등은 파편화·단편화되거나 다양화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의 모색과 새로운 집단행동이 출현하게 되었다.

1983-84년간 칠레에서 발생한 “저항”은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집단행

동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대중동원은 복잡다단하고 탈중앙집권적인 성격을 지녔다. 비록 노동운동단체에 의해 주최되었지만 “저항”은 지역주민들, 특히 지역의 소외된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Eduardo Valenzuela, 1986).

“저항”의 의미와 동기에 대한 토론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서 논의의 핵심은 “왜 이러한 대중적이고 강력한 운동이 군부지배를 종식시킬 수 없었는가” 하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그들은 변혁의 정치적 과정을 도출하는 데에 무능력하였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명제가 나온다. 즉 대중의 사회적 동원은 시민사회를 구성(또는 회복)하고 군사정권을 변혁할 수 있으나 그 자체로는 군사지배의 종식을 이루지 못한다. 왜냐하면 정치적 성숙 없이 독재의 종식과 민주적 변혁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민주화 변혁과 관련한 사회운동의 성격규명이 중요한 이유이다(Manuel Garretón, 1990).

주민운동을 구성하는 연령구조는 30살 미만이 69%로 다수를 이루고 있다. 교육수준은 대체로 초등학교 이하이다. 그러나 이들은 노동자의 정체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민주정부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나 극우 또는 극좌보다 중도민주당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표 6과 7 참고).

〈표 4〉 1980-85년간 토지의 “점유” 횟수와 참여자수

지역	“점유” 횟수	참여자수
La Granja	4*	25,544
La Cisterna	3	18,878
San Miguel	3	1,800
Renca	2	1,250
Pudahuel	1	800
Santiago	1	625
Puente Alto	1	600
La Florida	1	500
Quinta Normal	2	380
Conchal	1	350
Pealolén	1	300
Uoa	2**	170
Macul	1	150
Quilicura	1	100
총 계	24	51,447

출처: UIPA-FLACSO/ Eduardo Morales y Sergio Rojas, “Relocalización Socio-Espacial de la Pobreza Política Estatal y Presión Popular, 1979-1985,” *Espacio y Poder*, p. 96에서 재인용.

* 아파트의 점유.

** 주택의 점유.

주민의 생활조건과 사회적 행동은 오래 전부터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의 변화와 연구목적의 혼돈으로 인하여 언제나 주민의 구조적 측면에 대한 정확한 전망을 도출하지 못했으며 그 행위와 행동방향에 대한 가설을 공유할 수도 없었다. 역사적 해석과 현재의 해석이 일치하는 경향이 있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과는 정반대로 주민의 개념정의에 대해서는 거의 항상 폭넓은 의견의 불일치가 있어 왔다. 다시 말해 이러한 개념의 애매성 때문에 주민현상은 종종 아주 다양하거나 모순적이라고 규정되고 있다(Dagamar Raczynski, 1978).

3-3. 칠레 도시주민운동의 정치적 가능성

오랫동안 칠레의 정치운동과 사회운동은 정당에 의해 좌우되어 왔다. 이것은 그만큼 전통적인 계급적 정당운동의 영향력이 강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70년대와 80년대 군부의 권위주의적 지배는 기존 정당의 영향력을 감소시켰다. 그 대신 사회운동이 새로운 사회적 주체로서 등장하였다. 비록 민주화 이후 정상화된 정당정치가 정당의 과거역할을 회복시켰고 이에 따라 사회운동의 정치적 공간이 다시 협소해졌지만 이미 확보된 사회운동의 위상은 부정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도시주민운동이 새로운 사회운동의 하나로서 부각되는 배경이다.¹⁶

사실 주민운동은 맑스주의분석과 전통적 정치전략의 입장에서는 애매한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1972년 800,000명의 조직원, 즉 생산영역에서 모든 도시와 농촌의 노동조합보다 더 많은 지지기반을 지닌 엄청난 조직이 되었다. 또한 1982년의 인구조사에 적용된 방법에 따르면 이들의 수는 3,672,689명의 산티아고 수도권인구 가운데 1,208,900명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주민은 산티아고 도시인구 전체의 32.9%를 차지한다(Guillermo Campos, 1987: 24).

도시주민운동이 활성화된 배경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경제모델의 분석이 중요하다. 칠레사회학자인 프랑시스코 사파따(Francisco Zapata, 1985)에 따르면 신자유주의 경제모델의 적용은 강력한 사회적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1983-84년간 지속된 칠레의 “저항”운동은 사회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었지 경제적 위기 때문에 발생한 일회적 행동이 아니었다.

주민운동의 정치적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은 정당에 대한 그들의 태도이다. 지난 “저항”의 정치과정에서 보여준 정당과 주민운동의 관계는 아주 특수하다. 첫째로 주민과 이들 조직의 이질성으로 인하여 정당과의 관계는 파편화되는 경향이 있다. 둘째로 주민의 요구는 전체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사실상 삶의 전문야를 다루며, 따라서 그 요구

16 새로운 사회운동의 주체에 대한 논의는 최근 라틴아메리카 사회과학의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이다. 대표적 연구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Fernando Calderon y otros, *Los Movimientos Sociales ante la Crisis*, 1986; Daniel Camacho y Rafael Menjivar, *Los Movimientos Populares en América Latina*, UNU/Siglo XXI, 1989; *Revista Mexicana de Sociología*의 1989년 9-12월호(계간)는 사회운동을 특집으로 다루었다.

의 해결과정에서 사회구조와 대중은 집단행동을 통해 탈노동자화되고 있다. 셋째로 정당은 상대적으로 주민을 모르며 그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

정당에 대해 주민운동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은 아주 부정적이다. 이 판단은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로 정권을 바꾸는 데에서 보여준 정당들의 무능력, 둘째로 정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조장된 기존 정치가들에 대한 불신풍조, 셋째로 주민들의 일상적 삶의 문제에 대한 정당의 상대적 무지 등이 그것이다(Gallardo Bernardo, 1986).

주민들은 (가령 수도물과 전기 등) 그들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 해결되지 않고 지연되는 현실에 지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안적 정치 프로젝트에 대한 정당들의 -법률적·기구적 해결책을 강조하는- 대중설교는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어서 추상적인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푸다우엘(Pudahuel)의 한 지도자의 말을 인용해보자.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배고픔의 해결이지 대안적 사회가 아니다. 대안적 사회에 대한 프로젝트는 구멍 뚫린 양복주머니에 불과하다. 대중은 대안적 사회를 위해 준비되어 있지 않다.”¹⁷

주민조직들의 시간개념과 정당의 시간개념 사이의 불일치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 가운데 하나를 지적하면 추상적 정치진술과 긴급한 필요성간의 대립을 들 수 있다. 이 차이는 대중의 긴급한 요구와 정당의 정치 프로젝트 사이의 긴장을 표현하는 일면이라 할 수 있다. 또다른 중요한 실제적 차이는 투쟁의 두 형태 사이의 긴장관계, 즉 주민운동가와 정치운동가 사이의 긴장관계이다. 주민운동 지도자 가운데 많은 이들은 동시에 정당의 열성당원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당은 그들에게 주민조직의 특수한 일을 할 수 없는 과제를 부과한다. 이에 그들은 주민조직에 봉사할 것인가 아니면 정당에 봉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 이 긴장은 정당에 유리하게 결론이 난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정당이 그들을 포기한다는 비판을 하게 된다. 사실 정당은 주민의 “권리회복”이라는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단지 정당의 모임에만 참여하기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주민들은 정당의 지도자들이 다른 공간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시간에 살고 있다는 인상을 갖게 된다. 주민조직의 지도자들에 의하면, 정당은 기본적으로 “형식적 민주주의(대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주된 관심이 있으며 이것을 위하여 주민운동을 이용하고 있다. 정당에게 주민의 이익과 권리회복의 문제는 부차적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자신의 행동을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동시에 주민들은 정당이 그들을 흡수해서는 안되고 정반대로 그들 자신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당을 장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양자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예측하기는 힘들다. 그

17 Jorge Chateu y Hernan Pozo, *Idid.*, pp. 58-59.

러나 만약 정당이 주민의 구체적 요구를 수렴하지 않고 정치투쟁에 우선권을 부여 한다면 그들의 관계는 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칠레노동운동은 역사적으로 갈등주의적 경향을 지녀왔다. 기업가는 정치권력의 획득을 통해 파괴되어야 할 적로서 간주되었고 이것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로 정당화되었다. 그러나 지난 17년간의 군부독재를 겪으면서 칠레노동조합운동은 기업가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더이상 유지하기가 불가능함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Jaime Ruiz Tagle, 1992). 특히 칠레노동운동은 군사정부기간에 엄청나게 탄압을 받았으며 생존하기조차 아주 어려운 단계를 경험하여야 했다. 따라서 군사정부 초기에 정당과 노동조합의 최우선 과제는 생존이었고 주요인자들의 생존과 최소한의 기본조직 유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 1980-85년간 노동조합 가입자수는 상당히 감소했고 파업 참여자수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은 역설적으로 정당과 노동조합에 의해 “위로부터의” 사회운동 건설이라는 역사적 모델 대신 “아래로부터의” 사회운동이 형성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Francisco Zapata, 1987). 이에 의거하여 일종의 “기초주의(basismo)”가 형성되고 정당과 기존의 제도권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상대적 불신이 발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주민운동의 기초주의적 경향은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다.

<표 5> 노동조합가입, 단체협약, 파업의 상황

	노동조합 가입자		단체협약 참여노동자		연파업 참여노동자	
	수	전체 취업자의 비율%	수	전체 취업자의 비율%	수	전체 취업자의 비율%
1960-64	268,195	11.4	196,850	c/ 8.3	111,485	4.4
1965-70	464,118	17.7	349,316	d/ 13.4	330,004	f/ 12.5
1971-73	818,949	b/ 29.0	318,696	11.3	459,336	16.3
1980-85	361,930	12.1	89,839	e/ 3.0	12,246	g/ 0.4

출처: 노동통계, INE, 1976, 1978-81, 1986; 재정, 은행과 사회금고, INE, 1958-61, 1970; E. Jadresic, 칠레 경제를 위한 고용-생산 통계지수, *Notas Técnicas CIEPLAN*; Guillermo Camperoy Rene Cortazor, “Actores Sociales y la Transición a la Democracia en Chile,” *Colección Estudios CIEPLAN*, 1988, p. 122.

3-4. 주민의 행동논리

주민행동의 분석에서 중요한 사실은 주민의 사회적 행동이 다른 사회적 행동보다 더 분명한 이질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주민의 동원은 주민자신과 그의 외부 고무자(animadores) 사이의 단순한 상호관계에서 비롯하는 행동의 한 양식이다. 다시 말해 이

질성은 필연적으로 중성적 요소가 아니라 도시주변층의 세계에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소이다. 그것은 불안정한 순환적 행동이 되거나 심지어 잘못된 행동, 그러나 또한 필수적으로 긴급한 행동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주민의 이질성은 사회운동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방해할 수도 있다. 즉 사회관계의 자율성과 변혁의 능력을 방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의 행동이 비록 사회질서의 모순을 변혁시키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보다 더 잘 보이게 만드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

〈표 6〉 1989년 대통령선거의 결과

지역	NO%	Aylwin	Bucbi	Erraz	야당상원
	(a)	(b)			63.9%
I. Tarapaca	55.3%	49.7%	31.5%	18.8%	65.0%
II. Antofagasta	60.7%	57.6%	24.8%	17.5%	
III. Atacama	56.2%	60.7%	30.3%	9.0%	61.7%
IV. Coquimbo	54.0%	57.2%	31.0%	12.2%	60.3%
V. Valparaso	57.3%	52.6%	29.0%	18.4%	57.6%
VI. B. O'Higgins	55.9%	58.7%	29.6%	11.7%	59.2%
VII. del Maulle	51.2%	57.0%	28.5%	14.5%	59.9%
VIII. Biobio	55.3%	56.3%	24.9%	18.8%	62.5%
IX. Araucania	45.9%	47.2%	28.6%	24.4%	50.0%
X. Los Lagos	49.8%	51.1%	29.0%	19.9%	57.0%
XI. Ibáez del C.	50.0%	54.7%	30.9%	14.4%	57.3%
XII. Magallanes	57.6%	60.4%	29.6%	10.1%	66.2%
수도권지역	59.0%	56.2%	31.3%	12.5%	59.7%
합 계	56.0%	55.2%	29.4%	15.4%	59.0%

출처: 선거관리위원회 / Marcelo Garcia Silva, "Chile: Las Jornadas Electorales y la Nueva Democracia", *Secuencia*, No. 18, 1990, p. 197에서 재인용.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주민행동의 두 가지 행동논리인 "생존조직"의 논리와 군사정부에 대항하는 "정치투쟁조직"의 논리는 서로 결합되며, 이는 권위주의시기에 보다 전반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이 두 행동논리는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그들 사이에는 혼합적 상황의 요소가 존재한다. 가령 "권리회복"조직은 생존의 논리에, 청년조직은 정치행동의 논리에 보다 가깝다(Guillermo Campero, 1987).

또다른 중요한 사실은 생존이라는 말이 단지 경제적 생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경제적 측면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의 상황에서 도덕적·사회적 생

존 또한 중요하다. 참여의 역사적 메카니즘이 봉쇄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도구적인 표현과 상징적인 표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1987-89년의 정치과정에서 가장 기구화된 사회적 주체는 주민이었다. 문제는 그들의 역할이 아주 다양하다는 데 있다. 도시주변세계의 특징은 그것이 사회·정치적 통합체계의 해체로 인해 심화될 수 있는 “대기상태의 대중(masas en disponibilidad)”이라는 점이다. 이 경우, 주민은 강력한 구호주의(asistencialista)를 표방하는 정권의 포섭대상이 될 것이다.

한편 주민의 출현이 기존 정치체제에 대한 “폭력적 단절”의 표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년에 걸친 “저항”의 힘이 쇠퇴하여 주민들은 격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배제의 의식은 사회적 단절의 의식과 즉각적으로 협력하지 않는다. 오히려 위기를 극복하려는 생존의 의지와 협력하려 한다. 폭력의 자원은 힘의 역학관계에 유리한 결과를 보여주는 정도에 따라 주민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거절당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거시정치적 측면에서, 주민의 행동양식과 야당에 대한 기대는 안정된 사회적 질서라는 조건이 보장될 때에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정당이 시민성의 회복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식되거나 정당의 주장이 시민적·경제적 권리로 간주되는 동시에 비폭력적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시

〈표 7〉 수도권내 최고 부유지역과 빈곤지역의 투표결과 비교(1989)

	빈곤지역				부유지역
	17	18	19	25	23
기독교민주당(PCD)	33.1%	37.0%	30.0%	42.9%	26.6%
중도파총합계	33.1%	37.0%	30.0%	42.9%	26.6%
국가생신(R. N.)	7.4%	13.7%	5.5%	6.6%	42.3%
UDI	19.9%	11.5	14.9%	21.8%	19.3%
다른우익	11.1%	9.6%	11.2%	8.3%	3.1%
우익총합계	38.4%	34.7%	31.6%	36.7%	64.7%
민주주의를 위한 당(PPD)	29.5%	-	28.4%	-	8.7%
공산당(PC)	-	16.7%	-	11.8%	-
기독교좌파(IC)	-	-	-	5.3%	-
MIR	-	7.3%	-	-	-
녹색당	-	4.1%	-	3.3%	-
좌파총합계	29.5%	28.1%	28.4%	20.4%	8.7%

출처: Rodrigo Bano, “Chile, Tendencias Políticas y Resultados Electorales Después de Veinte Años,” *Revista Mexicana de Sociología*, 1990, p. 80.

민의 정치적 주제는 인권의 도덕적 주제와 관련되어 있다. 주민의 중요한 일부분이 보다 온건한 정치적 해결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은 지난 선거결과에 잘 나타나 있다(표 6과 7 참조). 다시 말해 폐쇄적 또는 개방적 상황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주민의 행동양식은 이미 예정되어 있으며, 이들은 자신의 행동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국가 또는 정치체제의 행동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Guillermo Campero, 1987).

3-5. 교회의 역할

군사정부기간에 칠레교회의 역할은 이중적이었다. 한편으로는 인권의 적극적 옹호를 선언하고 고무하였다. 군사정권이 인권유린하는 것을 전국적 차원에서 고발하고 국가기관과 대결하는 유일한 행위자로 가능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정치적 조직을 재건할 수 있는 대안적·정치적 공간의 역할을 하였다. 왜냐하면 정부는 정치와 사회의 고유한 공간을 부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는 그 자체의 본성으로 인하여 정치적 당파성을 갖는 적극적 개입은 하지는 않았다. 1983년 산티아고의 대주교는 정부와 야당에게 “대화”의 기회를 주선했으나 그 결과는 부정적이었다. 1985년 교회는 “전국민적 협약(Acuerdo Nacional)”을 고무하였다. 교회는 정권과 야당 사이에서 아주 분명하게 중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였다(Christina Parker, 1986).

주민운동과 관련하여 보다 중요한 것은 기초공동체의 형성과 그 역할에 있다. 기초공동체는 주민의 피신처이자 저항의 공간으로서 정치참여의 한 형태를 제공하였다. 군사정권이 강요하는 발전모델은 사회적 해체를 유발한 동시에 역으로 이에 대한 방어로서 공동체의 회복을 추동한 동시에 국가와 사회적 상황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근대화와 발전에 대한 비판으로서, 그리고 주민의 고유한 정체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건설하려는 시도로서 민주성의 회복이 실현되었다(Eduardo Valenzuela, 1984; Sergio Torres, 1989).

IV. 결 론

결론에서는 주민운동의 본질과 사회행동에 대한 분석을 다시 요약·정리하고, 그에 더하여 주민운동의 사회정치적 방향과 민주화를 향한 칠레의 정치과정이 함축하는 결과 사이의 관계에 대한 몇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최근의 도시주민운동은 조직적으로 노동자를 동원하는 고전적 운동양식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주민운동을 통한 민주화와 그 정착을 위한 평화적 전환이 어디까지 가능한가 하는 문제는 최근 논의의 주요쟁점이기도 하다. 이주자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대중으로서 도시주변의 주민은 빈민층을 형성한다. 이들은 차별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위기의 시대에 적합한 행동으로서 주민조직을 모색한다. 주민의 행동은 사회통합을 향한 욕구의 표현이다. 따라서 주민의 행동을 단절주의적 관점에서만 보는 것은

해석상의 오류이다. 이들은 노동계층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요구하며 더 나아가 중산층으로의 상승심리도 부정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우리의 잠정적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법론적으로 프랑스로 사회학이 아직도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도시사회운동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의 중요한 이론적 기반이 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80년대의 관심은 사회문화적 다양성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도시투쟁에 대한 계급적 해석은 이제 근거가 빈약한 종말론적 낙관주의로 지적된다. 삶의 객관적(경제적) 조건인 후퇴가 계급간의 모순을 심화시키고 결국 혁명을 향한 저항적 대중동원을 강화할 것이라는 종말론적 낙관주의는 역사적 현실과 거리가 먼 것이다.

둘째, 주민의 상황은 지난 10년간 지배계급체제에 의해 실험된 해체화과정의 파라디그마적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비임금계층이 지배적으로 된 결과이며 사회적 행위자들 사이의 기능적 관계가 허약하여 발생한 전체적 경향이다. 새로운 세대에게 정상적 일자리를 줄 수 없는 체제의 항구적 무능력과 노동시장 및 소비시장에서 소외된 저주받은 주민의 증가와 방치는 필연적으로 국가의 개입을 요구한다. 따라서 경제의 사유화와 작은 국가론의 강조는 상당히 허구적이다. 또 이런 의미에서 비공식부문의 증가현상은 선진국을 향한 변화의 정상적 과정이 아니다.

셋째, 국가와 항구적 모순관계에 있는 주민운동의 정치적 가능성의 폭은 그들과 공공권력간의 연결고리 속에서 그들이 갖는 자율성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네째, 이러한 새로운 사회운동이 풍부한 문화적 유산을 지니고 있으며 민주화를 위한 대중동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은 국가적 차원의 변혁을 성취하기에는 상당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80년대 주민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조직적 참여의 허약성이다. 주민계층의 자율적 대표기구는 자신의 허약한 능력을 노동조합 및 정당과의 연합노선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Agustín Cueva

1988 "Hacia Donde Va Nuestra Socialdemocracia?", *Revista Estudios Latinoamericanos*, Vol. IV, No. 6-7, enero-diciembre, pp. 59-70.

Alain Touraine

1989 *Política y Sociedad en América Latina*, Madrid, Espasa.

Alejandro Foxley

1986 *Para una Democracia Estable*, Santiago, de Chile.

1988 *Chile Puede Más*, Santiago, Planeta.

Christian Parker

1986 "Religión y Clases Subalternas Urbanas en una Sociedad Dependiente", *Religiosidad Popular Urbana en América Latina: Un Estudio de Caso en Chile*, Louvaine:

Catholic University.

Coordinadora Metropolitana de Pobladores

1986 "El Movimiento Poblacional: Apuntes para una Historia", *Araucaria de Chile*, No. 34, pp. 35-47.

Cristina Hurtado

1988 "Relaciones Cotidianas y Poblaciones Periféricas: El Caso de Chile", *Opciones*, No. 14, mayo-agosto 1988, pp. 195-211.

Dagmar Raczynski

1978 "Características del Empleo Informal Urbano en Chile", *Estudios CIEPLAN*, Santiago.

Daniel Camacho y Rafael Menjivar(coordinadores)

1989 *Los Movimientos Populares en América Latina*, México, Siglo XXI.

Eduardo Valenzuela

1984 *La Rebelión de los Jóvenes*, Santiago, Sur.

1986 "Los Jóvenes Chilenos y la Crisis de la Modernización", *Estudios Sociológicos*, mayo-agosto, pp. 399-417.

Eugenio Tironi

1986 "El Fantasma de los Pobladores", *Estudios Sociológicos*, mayo-agosto, pp. 391-397.

Eugenio Tironi(ed.)

1987 "Marginalidad, Movimientos Sociales y Democracia", *Proposiciones*, No. 14, Santiago, Sur.

Fernando Calderon(coordinador)

1986 *Los Movimientos Sociales ante la Crisis*, Buenos Aires, UNU/CLACSO/IISUNAM.

Francisco Zapata

1979 "Las Relaciones entre la Junta Militar y los Trabajadores Chilenos: 1973-1978", *Foro Internacional*, No. 78, oct.-dic., pp. 191-219.

1987 "Sindicalismo y Política en Chile desde 1973", en Mario Trujillo(comp.), *El Movimiento Obrero en América Latina*, Siglo XXI, Editores, México.

Guillermo Campero

1985 El Sindicalismo Chileno en el Regimen Militar(1973-1984), *Ibero-Americana*, NJLAS, Vol. XV. 1-2, pp. 175-188.

1987 *Entre la Sobrevivencia y la Acción Política: las Organizaciones de Pobladores en Santiago*, Estudios ILET, Santiago.

Hernando Soto

1988 *El Otro Sendero*, Bogota, Oveja Negra.

Jaime Insunza

1984 "El Rol del Movimiento Popular en el Desarrollo de la Democracia en Chile",

Opciones, agosto, pp. 177-190.

Jaime Ruiz Tagle

1992 "Desafíos del Sindicalismo Chileno Frente a la Flexibilización del Mercado del Trabajo", *Ponencia*, Los Angeles.

Javier Martínez y Eugenio Tironi

1985 *Las Clases Sociales en Chile: Cambio y Estratificación 1970-1980*, Santiago.

Jorge Chateau y otros

1987 *Espacio y Poder: Los Pobladores*, Santiago, FLACSO.

Manuel Antonio Garretón

1983 *El Proceso Político Chileno*, Santiago, FLACSO.

1988 "Chile: Transición Retardada y Perspectivas de la Democracia", *Razón y Fe*, febrero, No. 1072, pp. 155-167.

1990 "Partidos Políticos, Transición y Consolidación Democrática", *Proposiciones*, No. 8, enero, pp. 72-84.

Manuel Barrera y otros

1985 *Sindicato y Estado en el Chile Actual*, Santiago, UN/CES.

Manuel Castells

1971 *La Lucha de Clases en Chile*, Buenos Aires, Siglo XXI.

1972 *Movimientos Sociales Urbanos*, México, Siglo XXI.

1973 *Imperialismo y Urbanización en América Latina*, Barcelona.

Editorial Gustavo Gili

1977 *Ciudad, Democracia y Socialismo*, México, Siglo XXI.

1977 *Problemas de Investigación en Sociología Urbana*, México, Siglo XXI.

1991 *La Cuestión Urbana*, México, Siglo XXI.

Oscar Muñoz (compilador)

1990 "Transición a la Democracia: Marco Político y Económico", *CIEPLAN* Santiago.

Patricio Silva

1991 "Technocrats and Politics in Chile: From the Chicago Boys to the CIEPLAN Monks",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May, Vol. 23, No. 2, pp. 385-410.

Pilar Vergara

1985 *Auge y Caída del Neoliberalismo en Chile*, Santiago.

Piscilla Connolly

1990 "Dos Decadas de Sector Informal", *Sociología*, Vol. 5, No. 12, enero-abril.

Pozo H. Chateau

1985 "Los Pobladores en el Área Metropolitana: Situación y Características", *CIEPLAN*, Notas técnicas No. 71, Santiago.

Raczynski Dagmar

1978 "Características del Empleo Informal Urbano en Chile", *CIEPLAN*, Estudios CIEPLAN, No. 23, Santiago.

Ramirez Apolonia

1983 *El Sector Informal Urbano en Chile: Un Intento de Definición*, Santiago, PET.

Sergio Molina Silva

1972 *El Proceso de Cambio en Chile: La Experiencia 1965-1979*, Santiago, Editorial Universitaria.

Sergio Torres

1989 *Comunidades Eclesiales de Base: Veinte Años en Chile*, Santiago, Centro Ecumenico Diego de Medellin.

Tokman Victor

1978 "Las Relaciones entre los Sectores Formale e Informal", *Revista de la CEPAL*, 1er Semestre, Santiago.

Valdes Teresa

1983 *Poblaciones y Pobladores: Notas para una Discusión Conceptual*, FLACSO, Material de Discusión No. 33, Santiago.

1986 *El Movimiento Poblacional: La Recomposición de las Solidaridades Sociales*, FLACSO, Dcto de Trabajo No. 283, Santiago.

Vanderschuren Franz

1971 *Significado Político de las Juntas de Vecinos en Poblaciones de Santiago*, CIDU, Universidad Católica, EURE, Vol. I, No. 2, Santiago, junio.

Vincente Espinoza

1988 *Para una Historia de los Pobladores*, Santiago, Sur.

Un Estudio Sobre el Movimiento de Pobladores de Chile

Nam-Sup Lee

El tema central del presente trabajo es analizar el movimiento de los pobladores chilenos en el contexto del cambio estructural como uno de los fenómenos de los nuevos movimientos sociales.

Para este propósito, el presente ensayo intentó: 1) caracterizar los cambios recientes del capitalismo chileno en los años ochenta y la ubicación del sector informal; 2) elaborar la trayectoria histórica de los movimientos pobladores chilenos; y 3) analizar algunas

características ejemplifiquen la estructura y dinámica política de estos movimientos.

En breve, las conclusiones a las cuales llegó este estudio pueden expresarse de la manera siguiente;

1) La conceptualización y teorización en este campo es todavía incipiente y existe un debate no resuelto acerca de la naturaleza e implicaciones de estos movimientos. Lo anterior indica que estas categorías son todavía imprecisas y demasiado amplias.

2) La política económica del neoliberalismo tiende a incrementar el sector informal y al mismo tiempo constituye una de las condiciones estructurales del surgimiento del movimiento urbano social como los pobladores chilenos.

3) Este movimiento mantiene el importante grado de autonomía que alcanzan estructuras organizativas dentro de las cuales el actor central es “lo popular” y no “una clase”.

4) Sus formas del acción son tan disimiles como demandas: desde las marchas y sentones en la vía pública, pasando por huelgas de hambre, huelgas de consumidores, bloqueos y intervenciones, etc.

5) Este movimiento como uno de los nuevos movimientos sociales rompe de alguna manera el monopolio de la representación social que estaba en manos de los actores partidarios. Es decir, este movimiento lucha contra las formas tradicionales de hacer política y proponen nuevas formas de acción. Aquí tiene su significado.

이남섭, 전주한일신학교 신학과 조교수

주소 :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 1가 155

Tel : 0652)87-6096(O), 0446)78-6738(H)